2017 년 7 월 30 일 "찾아오신 예수님(35)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요 16:7-11)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미래 역할이 제자들(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하십니다.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깨우치시리라)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1] 죄

9 절 죄 –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12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새로운 관계로 맺어 주시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거부했고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목적을 수행하시려 했을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엡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버지/자녀 관계에는 한 조건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되기를(하나님처럼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욕망은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코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이루어 갈 수 없고 자기 성취욕이 동력이 되어 삶을 드라이브 해갑니다. 인간의 성경적 진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현실은 순종에 실패한 결과였습니다. 창 3 장.

아담/하와는 선악 나무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순종하는 피조물로 남는 것'을 계산했고, 전자를 택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를 뱀과 상의했고 그의 유혹이 확신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을 힘이 생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기는 커녕 서로 서먹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숨고, 불안해지고, 억울하고, 화나고, 열등감 느끼고, 두려워졌습니다. 그 결과는 분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간에, 사람과 삶의 터전과, 피조 인간에게 약속된 참 소망과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진짜 살아야 할 삶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분열은 결국 삶과, 내면의 세계(인간성)와, 사회를 깨버리고, 그 결과 약속으로 받을 축복도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깨짐은 각자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처럼 되면 유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과 실행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짐을 단순히 나쁜 자들의 욕망이나, 집단적 이기심 때문이라고 탓하고, 또 옆에 있는 당신 때문이라고 탓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분열과 깨짐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 노릇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인간의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영광스러운 아들/딸로서 영생의 축복의 약속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창 3 장의 과오를 그대로 껴안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죄에 머묾).

[2] 의

10 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죄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라면, 의는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들의 자리에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 안 해도(빌 2:6) 피조물로서 축복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는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충실하여 순종하신다는 뜻입니다. 의는 관계적 용어입니다(일차적으로). 핵심은 그분의 삶과 죽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셔서 관계회복의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예수님은 아담의 분열의 실패를 극복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신 '예수님의 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3] 심판

11 절에서 심판은 인간이 죄에 머물게 역사하는 세상 임금, 사탄이 맞이하는 결국을 뜻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내가 거짓과 유혹에 빠져 계속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계속 분열과 단절을 일으킵니다. 그의 의도는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 자기중심적 욕망에 빠진 채 종국을 맞게 하려는 것(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예수님의 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술수가 거짓임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력해졌습니다(심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축복이 다시 실효되었으므로 그의 망령된 거짓의 여파는 끝났습니다. **요일 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 또한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그의 거짓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안심하고 감사하며 아들과 딸들로서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약속하신 축복(유업)을 보장받습니다.

<맺음>

죄, 의, 심판에 대한 깊은 묵상 세계가 일어난다면 성령께서는 복음의 축복의 차원을 더욱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복음의 삶이 견고해지고, 기쁨이 충만하여 유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죄, 의, 사탄이 받는 심판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요.
2. 성령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면 유익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예: 죄를 깨달으니 생각과 삶의 방식과 열매 맺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의와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도)
3.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익이 되는 길을 소개하셨는데 그것을 구하고 찾지 않는다면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이 됩니다. 서로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주세요.